

2019 새 설계

정헌율 익산시장

“유라시아 철도거점 중심지 기반 구축 체계적 준비”



“사람 중심의 행복한 익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가 출범하고 익산시의 새로운 동력사업 찾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해는 익산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새로운 사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올해 이끌어갈 시정 역점시책으로 ‘더 좋은 미래, 활력 익산’과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상생 익산’,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 익산’, ‘백제의 숨결, 품격 익산’,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 익산’ 등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KTX 익산역은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 장항선 등 4개 철로가 분기하는 전국 유일의 철도역으로 남북철도 시발역 후보지로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유라시아 철도거점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과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꿈이 실현되는 일자리 창출 계획도 밝혔다.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안전보호 용복합제품사업 추진 총력 일자리 7100개 창출 지역경제 활력

그는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 은퇴한 어르신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 때 도시도 함께 발전한다는 신념으로 2019년을 일자리 도시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일자리, 어르신이 다시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 여성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KTX 익산역과 중앙동 주변에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남동동 구도심 지역에 10층 규모의 주민친화형 신정사를 건립하여 골고루 발전하는 익산시를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 익산의 신성장산업인 안전보호 용복합사업과 홀로그램콘텐츠사업을 통해 밝은 익산의 미래를 그려나갈 시책도 제시했다.

시는 신성장산업인 안전보호 용복합 제품산업,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95억원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안전보호 용복합 제품산업은 2018년 4월 예타를 통과했고,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도 2018년 12월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돼 익산시의 밝은 미래가 예상된다고 평했다.

정 시장은 시의 부채를 2021년까지 전액 상환하고 일자리 7100개 창출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권 도서관과 금마도서관을 설립하고, 도시와 농촌이 잘사는 상생 익산을 위한 농생명ICT검인센터 설립, 스마트푸드 시스템 구축, 말 산업 체험관 건립 등을 통해 도·농 상생을 추구한다는 복안이다.

무상보육 실현 등을 통한 희망 익산을 만들고, 백제 왕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품격 익산 조성에도 힘을 생각이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 푸른 익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추진계획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더 좋은 미래, 활력 익산
- ▲도시와 농촌이 하나되는 상생 익산
-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 익산
- ▲백제의 숨결, 품격 익산
-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 익산

을 세워 푸른 숲 가꾸기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에는 ‘전 시민,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전개해 시민 참여 숲을 조성하고, 빈집·공터 등을 매입해 소규모공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신축 때 조경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해 성과에 멈추지 않고 올해도 핵심 프로젝트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계획된 목표를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j@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전주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전주시, 중기 해외마케팅 비용 대폭 지원

200여 회사 해외판로개척·박람회 참가비 등 6억원

전주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 마케팅을 위해 6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6년 3000만원에 불과했던 해외 마케팅 지원비와 비교하면 20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0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회, 해외 지사화 사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동영상(홈페이지)제작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참여 기업들이 선호하는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횟수를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로 늘리고 파견지역도 북중미(2월)와 동남아(6월) 등으로 확대한다.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횟수도 중

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개별참가와 해외 지사화 지원 업체도 작년보다 배로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수출과 자금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게 현장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전담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3억원을 들여 총 150개 수출업체를 지원했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지역 기업을 키우고 기업의 기를 살려 작지만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독일형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신시도 자연휴양림

사업비 230억원으로 증액

120ha 규모 2021년 완공

전북도는 군산시 신시도에 조성되는 국립자연휴양림의 사업비가 예초 85억원에서 23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한 군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비 확대에 따라 산림휴양소, 해양수목 전시원, 산림문화원, 숲속의 집을 추가로 만들고 규모도 키우게 된다.

부지 면적도 119ha에서 120ha로 소폭 늘어났다.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완공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휴양림이 조성되면 새만금방조제, 군산 시간여행 마을 등을 연결하는 군산의 체류형 관광지 조성 계획이 더욱 탄력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찾아가는 서비스’ 로 개선

고창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방식을 농촌 고령화에 맞춰 ‘찾아가는 서비스’로 개선·운영한다. (사진)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농민들이 직접 대형 임대 농기계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운반 차량을 구입, 임대 농기계의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농기계 세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억6000만원을 들여 고창읍과 해리면에 위치한 각 사업장에 세차시설을 완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자, 영세농가 등 농기계 이용 취약자들이 소규모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 사업과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보한 3억원을 투입해 상반기 중 노후 농기계 17



중 54대를 교체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를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생산비 절감, 적기 영농추진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상반기 중 각종 사업을 시행해 새로운 임대사업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정읍시, ‘시민과 대화’ 추진

26일까지 23개 읍면동 대상

정읍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장 동향과 민심 여론을 청취해 주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 14일 신대인읍 하늘향노인복지센터와 복면행복집에서 시작된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26일까지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조치계획과 추진 상황, 결과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 소통행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500평, 8500만원 투자, 투자가치 충분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함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